

해남 산림 더 푸르게... 편백·백합 30만 그루 심는다

27억원 투입 183ha에 조림사업...기후변화 대응·지역 특화자원 육성 황산면 원호지구 등 11개 지구에 황칠특화림·견과류 웰빙 숲 조성도

해남군이 올해 편백·백합 등 30만 그루를 심는 등 산림자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림자원 확충과 목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역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도비 등 26억 8000만원을 투입해 산림 183ha에 편백, 백합, 상수리 등 총 3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생장이 우수한 수종의 경제림

집중 육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회복과 증진,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지역 브랜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조림사업은 목재 공급과 단기소득을 위한 경제림 65ha, 지역특화자원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102ha, 경관조성·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 조림 8ha 등이 추진된다.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 조림으로 황산면 원호지구 등 11개 지구에 42ha규모의 황칠특화림과 견과류 웰빙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흑석산에는 철쭉숲 20ha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2050 탄소중립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발휘를 목적인 탄소저감조림 5ha, 산불예방 및 대형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조성 3ha 등을 조성한다. 탄소흡수율이 높은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해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200만그루 나무심기 역점 추진하고 있다"며 "나무심기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 4월 열린 해남 달마고도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식목행사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신안군, 왕새우 생산 700억 달성 위한 힘찬 출발

지난달부터 본격 종자 입식 25일까지 5억마리 예정

신안군이 왕새우 생산 700억원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왕새우 양식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신안군은 본격적인 새우양식 시기를 맞아 지난 4월 말부터 종자 입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군이 관내 새우종자 배양장 3개소를 가동, 지역에서 소비하는 종자 40% 이상을 충당하고 있어 새우양식 어가들의 운송비절감, 적기 입식 등에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입식 시기는 예년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5억마리 이상의 종자입식이 예상되며 오는 25일까지 입식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3월 초부터 중간육성장(100개소 가동)에서 약 1개월 가량 0.2~0.5g정도 키워낸 종자를 축적식 양식장에 입식(전체 입식량의 60%이상 차지)을 하고 있어 입식초기 폐사율 저감, 출하시기 조절, 질병 예방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 양식새우 생산은 지난해 기준 262어가, 31.9개소(862ha)에서 4000여(550억원)을 생



신안군 새우양식어가가 0.2~0.5g정도로 키워낸 치어를 입식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600억원 이상의 생산고를 달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4월에 착공한 300억 원 규모의 새우종자 전용 생산시설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60억원)이 2024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며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경찰, AI로 교통사고율 낮춘다

위험도 예측 시스템 T-세이퍼 도입...8월 가동 목표

목포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 (T-세이퍼·사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T-세이퍼(Transportation Safety Keeper)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함께 개발했다.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시설 정보, 기상환경 자료 등 빅데이터를 모으고 사고 요인을 40여 가지로 나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시설대선 등 대안도 제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T-세이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참여형 치안 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 일부를 확보했다. 이후 목포시와 예산 협의를 마무리

한 뒤 오는 8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교통사고 예방 중합대책을 수립해 선진교통문화 도시 목포 만들기 범시민 협의회를 출범하고, 모든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목표·신안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줄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T-세이퍼가 도입되면 인공지능이 예측한 교통사고 위험도를 기반으로, 교통단속과 시설개선 등에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교통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특목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기내식 요리' 자신 있다면 7월 무안으로~

황토골 전국 요리 경연 다음달까지 참가자 모집

무안군이 무안연꽃축제 기간인 7월 22일 개최하는 '제15회 황토골 무안 전국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 무안특산물에 이용한 독창적이고 상품성 있는 음식 발굴을 위한 기내식 요리 경연으로, 주제는 '세계를 잇는 무안의 맛'이다. 참가 자격은 요리에 자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레시피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20팀은 연꽃축제장 주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된다. 대상 1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2팀은 전남도지사상, 그리고 우수상 2팀과 장려상 15팀은 무안군수상을 받는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과 무



요리경연대회 모습.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의 맛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지적·재조사 토지행정 연수' 최우수

진도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최한 '2023년 지적·재조사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대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전남 시·군 토지행정 담당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했다. 군은 '비대면 온라인 온택트 지적 측량 성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능 개선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토지행정 연수대회는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열린다. 전남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참여한다. 창의적인 사업안과 제도 개선으로 토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회를 마련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업무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민 편의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삼학도크루즈, 해양관광 활성화 협약



목포시가 (주)목포삼학도크루즈와 해양관광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12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률(왼쪽) 시장과 (주)목포삼학도크루즈 정경오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목포 해양관광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사업 및 상품개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획,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학도크루즈는 관광거점도시 및 해양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야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산업 발전 모색, 할인 혜택 제공 등 관광객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 기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2000만 관광 시대를 넘어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완도 '다시마 풍년 기원' 첫 위판

전국 생산량 70% 차지...24일 금일읍 위판장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완도에서 오는 24일 다시마의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첫 위판)이 열린다. 완도군은 이날 완도군 금일읍에서 다시마 초매식을 열고 올해 풍년을 기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완도 다시마는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펙틴성으로 형성된 해역에서 자라 맛과 영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등에도 효능이 있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마 등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양 약학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오르기도 했

다. 지난 13일에는 '14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를 열고 다시마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다시마'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는 다시마 미끄러짐 체험과 시식, 마을별 단체 줄넘기, 노래자랑,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구택중 전 완도금일수협조합장이 '읍민의 상'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달 초 단비가 내리면서 제한 급수가 해제되어 참 다행"이라며 "다시마의 가치를 더 널리 알려 금일 명품 다시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다시마 수확 철 어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소방서 재난대응 훈련

신안소방서는 지난 11일 신안군 안좌면 읍동선 착장에서 '2023년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동 선박이 많은 신안 해역에서 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신안소방서와 특수구조단(항공대), 신안군, 신안군보건소, 목포해양경찰서, 목포경찰서, 도초농협 등을 포함한 10개의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재난사고 발생 때 초동 대응을 훈련하고 긴급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다졌다. 또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응한 위기관리 능력을 기웠다. 이번 훈련에서는 위기를 모르는 폭발로 인해 대형 선박에 불이 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초기 대응과 긴급 구조 지휘,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총력 대응 등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